

찬 송 350장 다 같 이
(마지막 절은 일어서서)

<예물바침>
(목사)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위엄과 영광이 다 주께 속하였나
이다.
(회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오니 우리가 주의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참조, 대상29:11)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식

<통상교회력 성만찬>

파송

<교회소식>

<파송의 찬양> : 하나님의 부르심 (일어서서)

- (1)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위락의 말씀> (요일3:23)

(목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축복> (빌4:7)

(목사)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의 지식과 사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이 너
희 무리와 항상 함께할지어다.

(회중) 아멘!

<후주> (후주가 연주되는 동안 예배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주일설교 : 구원, 그 이후(7) /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허무한 기다림인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가?”
/ 사65:17-21; 뱀후3:11-13; 마25:34-40 >

✠ 교회 소식 ✠

㉑ 예배 : “돌아보니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숨 가쁘게 지나온 시간 속에도 주님의 손길은 단 한 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117년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볼 때, 우리의 예배는 다시 뜨거워집니다.

2026 설교시리즈 “구원 그 이후”				
날짜	제목	구약	서신서	복음서
8월 23일	구원, 그 이후 (1) : 도피인가, 변혁인가?	렘 29:4-7	롬 8:19-23	마 5:13-16
8월 30일	구원, 그 이후 (2) : 종교적 열심인가, 일상 속의 공의와 자비인가?	암 5:21-24	약 1:26-27	마 23:23-24
9월 6일	구원, 그 이후 (3) : 배타적 혐오인가, 십자가의 환대인가?	온 4:8-11	엡 2:14-18	마 15:21-28
9월 13일	구원, 그 이후 (4) : 세상 속의 거룩, 분리주의인가 성육신의 참여인가?	사 58:6-9	빌 2:5-8	눅 5:27-32
9월 20일	구원, 그 이후 (5) : 세상을 대하는 방식, 기독교 제국주의인가 섬김의 십자가인가?	숙 4:6-10	고전 1:27-31	막 10:41-45
9월 27일	구원, 그 이후 (6) : 복음과 사회 구조 - 개인의 수양인가, 구조적 악과의 싸움인가?	미 6:6-8	엡 6:10-13	눅 4:18-21
10월 4일	구원, 그 이후 (7) :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 - 허무한 기다림인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인가?	사 65:17-21	뱀후 3:11-13	마 25:34-40

㉒ 네팔 대홍수 긴급구호 헌금 : 지난 8월 26일 대규모 홍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네팔을 돕기 위해 총회와 함께 긴급구호 및 복구 헌금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헌금시 기록 "홍길동네팔") *마감기한 : 9월 27일(오늘)

㉓ 모임

- 한샘 여전도회 월례회 : 27일(오늘) 2부 예배 후, 기도실
- 정기당회 : 27일(오늘) 오후 1시 30분, 회의실
- 여전도회 일일기도회(한빛주관) : 10월 1일(목) 오전 11시, 기도실
- 전체제직회 : 10월 4일(주) 2부 예배후, 본당
- 구역장 모임 : 10월 4일(주) 오후 1시, 회의실

㉔ 신앙 독서 나눔 “복음을 정확하게” : 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소가재

㉕ 목사청빙위원회 기도회 안내 (기간 : 9월 한 달간)
- 매 주일 위원들이 모여 기도회 및 매일 개인 기도

㉖ 식당봉사

- 27일(주) : 김미선 김주연 / 강성윤 김종훈
- 10월 4일(주) : 김연신 최은진 / 송홍식 박지윤

㉗ 교역자 휴가 : 마명규 목사, 29일(화)-10월 7일(수)

1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안동교회 1909년 3월 첫주일창립

제781호

2026. 9. 27.

성령강림 후 열여덟째주일

2026년도 주제 :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창조세계 보전의 해



구원, 그 이후(6)“복음과 사회 구조- 개인의 수양인가, 구조적 악과의 싸움인가?”

에베소서 6:12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내 마음의 평안'이나 '개인적인 도덕성'으로 축소하
고, 세상을 지배하는 억압적이고 타락한 '구조적 악(Structural Evil)'에는 침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 '통치자들과 권세들(불의한 사회
시스템)'을 향한 영적 전투라고 선포합니다(엡6:12). 세속적 혁명은 폭력으로 시스
템을 바꾸려다 또 다른 독재를 낳고, 개인주의 신앙은 불의에 도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만물을 엮매는 악의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골2:15).
동독의 무자비한 슈타지 정권을 무너뜨린 라이프치히 교회의 평화로운 촛불 기도
회처럼, 우리도 개인의 위로에만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
하여 일터의 불의한 관행, 악자를 차별하는 사회 구조에 맞서 진리와 정의를 실천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그룹 나눔 질문

1. 나는 평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힐링)'을 얻는 개
인적 수단으로만 여기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2. 현재 내가 속한 직장이나 사회, 혹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불의한 구조(관행,
차별, 억압 등)'는 무엇이 있으며, 이에 맞서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켤 수 있
는 '복음의 촛불(실천)'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온라인주보



서울시 종로구 윤보선길 57 (안국동)
57, Yunboseon-gil, Jongno-gu, Seoul, Korea
TEL. (02) 733-3395 FAX. (02) 733-3398
E-mail. office@andong-ch.org http://www.andong-ch.org

성령강림 후 열여덟째주일에배

1부 예배 : 오전 9시

인도 : 황영태 목사

개회예전

<인사>

(목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우리 다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징울림> 말 은 이

<성경의 선언> (시34:8)

(목사) 너희는 여호와와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개회송> (오르간)

<오늘의 기도>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되게 하시고,
온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33장 다 갈 이

<죄의 고백과 용서>

(1) 고백으로의 초청(히4:14-16)

(목사)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죄를 다같이 조용히 고백합니다.

(잠시 묵상기도)

(2) 죄의 고백

(다같이)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은 주님께 진실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하였나이다. 공의를 행하지 못하였으며, 인자를 사랑하지도 못하였으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였나이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며,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풍성한 영으로 우리를 불도소서.

(3) 용서의 선언

(목사)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아시고, 평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회중)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회중)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 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갈 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후, 자리에 앉습니다.)

말씀예전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

(목사)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이 하늘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중) 아멘.

찬 송 348장 다 갈 이

<구약의 말씀> 미가 6:6-8(1296) 최 호 정 권 사
(*낭독하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신서 말씀> 에베소서 6:10-13(316) 최 호 정 권 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 씀 목 상 > “예수 따라가며” 민 동 림 권 사
오르간

<복음서 말씀> 누가복음 4:18-21(93) 손 선 경 권 사
(*낭독한 후에*) (봉독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 중)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침묵*)

< 설 교 > .. 『복음과 사회 구조-개인의 수양인가, 구조적 악과의 싸움인가?』 ...황 영 태 목 사

<설교 후 응답> (계5:12)

(목사)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회중) 아멘.

<믿음의 확증: 신앙고백(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회중의 기도> 손 선 경 권 사